

비트코인 투자자들 ‘비명’



정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시사에 시세 폭락
광주·전남 20~30대 중심 투자 광풍 여전히 계속

투자나 투기냐를 놓고 세대 갈등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라는 초강수 대책을 밝히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가상화폐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금융업 등 업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도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을 냈다는 소식에 20~30대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으며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고민하는 중·장년층 역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잇단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가상화폐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젊은층이 온라인 투자 환경에 익숙해 접근이 쉽고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라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30~39세가 61.29%로 가장 많았고 40~49세(22.58%), 20~29세(12.9%), 60세 이상(3.23%) 순이었다. 가상화폐 판매에 뛰어들은 10명 중 7명 이상은 20대와

30대라는 얘기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포함한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놔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의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는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투자자의 투기 수요가 멈추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투자자간 규제는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간 갈등마저 깊어지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노린 사기 범죄가 횡행해 피해를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가상화폐를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로 보느냐의 시각차가 있다. 젊은층은 가상화폐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 투자 자산에 익숙한 기성세대에선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기 범죄와 관련해 서도 기성세대는 “나도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대박’을 노린 투자가 앞말이 하나 건지지 못하는 ‘쪽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우려한다.

경찰 역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만연한 한탕주의 심리가 가상화폐 사기 범죄를 부추긴다”며 경계를 당부하는 실정이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가상화폐의 거품도 문제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시사하자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다. 20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1127만 5000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만에 최저기록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방송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가상화폐 대부분은 나쁜 결말을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가상화폐 전망에 비관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MB “盧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나에게 물어라”

사무실서 성명 발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켰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의료,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

한파 그치자 미세먼지·황사 공습 ▶6면

그림편지-임의진 오스트리아 ▶18면



콜록 콜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기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계열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이스하키 대표팀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북 진천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 아이스하키 훈련장에서 남한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개정 전대 규정 법정다툼 비화

반대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대표 “당 와해 시키려는 시도”

국민의당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가 17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2·4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개정된 당원자격, 전대 개최 방법과 관련한 당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 전당대회 관련 당규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

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또 당비 미납자들 (전대 표결권이 있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도 법률 불소급원칙과 정당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또 오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과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창당 일정을 구체화했고, 오후에는 전주교대에서 창당 결의대회도 열었다. 당규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나감에 동시에 신당창당 일정표를 명확히 밝히면서 합당 찬성파를 압박하고 사실상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표도 강력 반발했다. 안 대표

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반대파들의 행동이)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 시키려는 것까지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이날 밤 늦게까지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안건으로 한 2·4 임시전대 소집 공고를 낼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은 합당반대파와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애초 전대 소집 공고를 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당규 개정으로 전대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합당찬성파의 의도대로 의장 교체도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밤 늦게 전대 소집 공고를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지자체장·주민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낙연 국무총리 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이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차미디어센

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설령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책이나 향후 경제적 득실을 균형있게 판단하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포용적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마음으로 지역민들과 열린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경북 의성군이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전남도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운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향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신스톤어 및 잔국 백화전,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신스톤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